

**Publisher :**

Jong Sung Kim

**Editors :**

Ginena Wills, Jennifer Oh

**Editorial Board :**

김중언, John Nuessle

Caroline Njuki, 장학범

김효식, Ginena Wills

고석천, Jennifer Oh

**Published by**

Hope5L2F Foundation

7-11 South Broadway, Suite 3

White Plains, NY 10601

866-967-5123 (Phone)

866-267-0788 (Fa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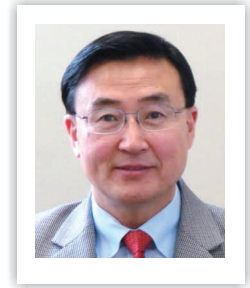
missionjournal@Hope5L2F.org

www.Hope5L2F.org



**Publisher's Note**

## 선교와 건강 Mission and Preventive Health



Hope5L2F 재단 대표  
김종성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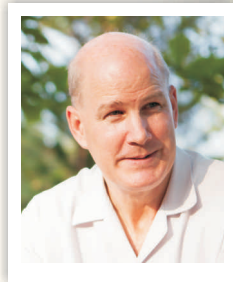
2016년 선교저널 여름호의 Theme을 “선교 (Mission)와 건강 (Preventive Health)로 정하였습니다. 2014년 봄부터 시작이 된 선교저널은 매 회마다, 선교지에서 필요로 하고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들과 Issue들을 Theme으로 정리를 해서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까지의 선교저널 Theme들만을 통해서도 오늘날 세계 여러 선교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교의 Scope을 이해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매회 선교저널을 통해서 다양한 선교의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름호의 Theme을 통해서도 21세기 선교의 Scope이 얼마나 다양해야 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선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선교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공동체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Agent가 될 수 있도록 돕고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21세기의 복음 증거 사역은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이 이 사회를 변화 시키는 Agent로 성장하고 성숙해 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세계 여러 곳의 선교지에서 문제점의 하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의료 혜택의 사각지에서 많은 질병에 시달리며 목숨까지 잃게 되는 현실을 우리들은 선교지에서 너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이 우리들 주위에서는 흔히 구할 수 있는 의약품의 부족으로 생명을 잃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선교지의 삶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해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선교지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의료 혜택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번 호에 소개 된 태국의 Kwai River 기독 병원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날 선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18세기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신앙인의 삶에는 “영혼 구원”과 “사회 구원”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내 영혼의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영원이 사회를 구원하는 Agent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선교 사역의 Scope도 “영혼 구원”과 “사회 구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복음의 역사로 한 영혼만이 구원을 얻고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으로 말미암아 그가 속한 신앙의 공동체와 지역 사회가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것이 선교의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선교저널의 초대 칼럼니스트인 김 진양 박사는, 요한 계시록 21:2절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은 하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일그러진 세상으로 내려 온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도시”가 일그러진 세상으로 내려오는 이유는 “세상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김 진양 박사가 이야기 해주는 “새 예루살렘의 비전”입니다. 21세기 선교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cott Murray, Hospital Director

## Kwai River Christian Hospital - Health on the Border



For most of our patients and the population in the surrounding area along the Thai-Burma Border where Kwai River Christian Hospital provides medical services, the term 'Health' is far from their day-to-day thoughts. Just living each day to provide for their needs is a constant battle. 'Survival' is more important than health.

For most here, health is determined by their karma. It is essentially pre-programmed; The results of a previous existence that they lived. So, a child born with a cleft lip must have bad-mouthed or cursed their parents in a previous lifetime. Someone who suffers a broken leg or is born with a club foot may have kicked someone or injured an animal's leg in a previous lifetime. Thus, there is no need to think about their health as, "what will be, will be" and prevention cannot prevent what is inevitable. Every life event, whether illness or other forms of suffering are simply a matter of fate.

The outcome of this is that when people get ill, doctors are usually not the first place the patient or their family will turn to. In fact, they will often assume that it is fate; any cure if at all possible, comes through making merit. For Buddhists this entails a visit to the temple and asking the temple monk's what they should do to 'redeem' the situation. For animists this would require appeasing the spirit's that reside in their village, house or garden tree that they must have upset.



50% of my patients will have been to the temple, a herbalist, Shaman or Witch Doctor, or all of the above, before they come to me for treatment. This means delay in treatment or death often coming before even getting to a hospital. Fate determines their destiny so doctors come much later on and usually only when all else fails. Not only that, but as I am the only surgeon for 250 Km in every direction there are not a lot of hospitals in the area for people to get their treatment from.

Here are some cases of the patients who came to our hospital for various treatments.

**Case 1:** 14 year old boy broke his leg 4 years earlier after falling out of a tree while collecting honey from a bees next to sell in the market. Lay at home 4 years. He had not walked since then. He came requesting to walk again!

Originally treated by a local village Shaman. Plaster of Paris removed 3 months after surgery. He was soon walking and back at school. Their world view was of 'Fatalism'. He must have done something bad in a previous lifetime so nothing was done for 4 years until he heard about the hospital and others healed. He became a Christian.

**Case 2:** A man had stomach pains for 1 week. He went to the local Witch Doctor where he was told that it was an 'evil spirit' inside causing the pain. The Witch Doctor then took a sharp knife and made stripes of cuts in his skin to 'exorcise the spirit'. Eventually he came to our hospital. We diagnosed Typhoid and a ruptured small bowel. He was very sick but survived the operation and went home cured! He heard the Gospel.

**Case 3:** A man had a swollen and painful cheek for a week. He went to see a local Chinese doctor who in a special ceremony has written the word 'Tiger' in Chinese on his cheek to frighten away the 'illness' caused by a 'hex' or



'curse' that he said had caused illness. Surgery drained the abscess and he was cured!

**Case 4:** A man came with a broken leg. In this case, an improvised splint made from bamboo was to hold a broken leg in place by the local village 'Bone Doctor'. It was to remain on for 2 weeks during which, if he removed it before then he would never walk again! He came for an X-ray but would not allow me to treat him. 1 year later he came back as he could still not walk and I operated to fix it for him!

**Case 5:** 5 year old boy sustained an injury when a stick hit his eye in an accident. It became infected 2 weeks later and after walking 3 days came to our hospital in agony with pain in his eye and blind. He lives in the jungle with his parents and had no running water or electricity in his home.

He collects water each day from the river 500 meters from his house, for his family to use. Unfortunately we had to remove his eye as the eye was irreversibly damaged. He now has a glass eye and is pain free.

Whereas in the west, the view of 'Health' for the most part is, 'an absence of disease' for most in the east it is a 'state of harmony between body, mind and spirit'. If they can live in peace with their neighbours and the environment without upsetting the balance then they have good health. Indeed, the word in Thai for Health is literally, '**to be happ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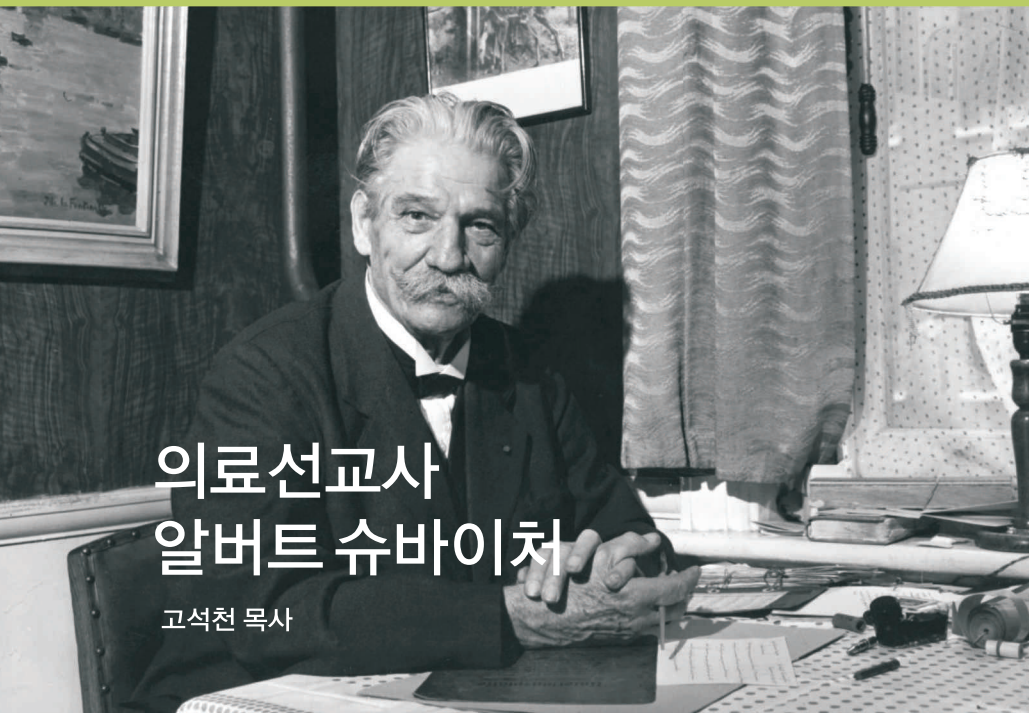
80% of our patients are migrants living along the Thai-Burmese border west of Bangkok 400Km. 50% of our patients travel at least 100 Km to see us each day. 30% travel over 200 Km to have their medical problems seen to. Most are simply farmers with little income and often little education, from Buddhist or Animistic cultures. 50% of our patients cannot afford even our cheap medical costs.



For these we rely on donations to help us buy in enough drugs to help the next patient that arrives needing our help. Each of the above Patients got to hear the Gospel while receiving treatment. Our goal is to offer excellent medical care and to share the good news of Christ. This is where 'true happiness' can be found and surely 'the best health'.

---

*Born a 'Missionary Kid' to Missionary parents working in Thailand. Working with OMF International since 1991 as a Medical Missionary Surgeon. Medical and Surgical training in Scotland before working, initially at Manorom Christian Hospital, Central Thailand for nearly 20 years where worked with general and Leprosy patients. Married to Nok with 3 teenage children who were home schooled till going to a Christian High school in Chiangmai. Currently the Hospital Director and Surgeon and General Doctor for Kwai River Christian Hospital since 2010.*



## 의료선교사 알버트 슈바이처

고석천 목사

지난 세기에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 중 한분이 알버트 슈바이처 (Albert Schweitzer 1875-1965) 박사이다.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 가봉 람바라네에서 의료선교사로 50년을 헌신적으로 살며 섬김과 생명 존중과 인류에게 평화의 길을 제시했다. 슈바이처의 자서전 "나의 생애와 사상 Out of My Life and Thought"(1931)을 중심으로 그의 삶과 사상을 다루고자 한다.

슈바이처는 프랑스와 독일의 접경지역인 Alsace-Lorraine 지역에서 태어났다. 그의 가문에는 목사인 부친을 비롯하여 성직자와 유명 음악인이 많았다. 슈바이처가 어릴 때 받은 피아노와 올겐 레슨은 올겐 연주자로 국제적 명성을 얻으며, 바하 음악의 권위자가 되는데 기초가 되었다.

그는 Strasbourg 대학에 진학하여 철학 및 신학을 공부하여 학위를 받았다. 동 대학에서 교수로 가르치며, 신학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의 책 "The Quest of Historical Jesus" 와 여러 논문등을 통해서 역사적 예수에 관한 연구에 큰 기여를 했다. 또한 바울 서신 연구를 통하여 종말과 부활사상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가장 중요한 요소였음을 발견하고 종말 신앙의 회복을 강조했다. 교회 부목사로서 주일마다 설교를 하며 안정된 삶을 살았다.

어느날 프랑스 파리의 아프리카 선교회가 발행한 신문을 읽게 되었다. 신문 광고에 의하면 아프리카 지역에 의사가 부족하여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선교회가 소개한 글에 감동을 받고 자신이 의사가 되어 아프리카에 가기로 결심을 했다. 그의 나이 30세 때였다. 의료 선교를 계획하며 앞으로는 말만 하는 삶은 이제 그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겠다고 다짐을 했다. 그는 의과대학에 들어가 의료 선교사가 되기 위한 의학을 공부를 시작하고 7년 만에 과정을 마쳤다. 부인 Helene Bresslau 는 남편의 의료 사역을 돕기위해 간호학을 공부했다.

슈바이처는 파리의 아프리카 선교회 소속으로 선교사를 지망했다. 그 소식을 듣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다름이 아닌 친척들이었다. 자기들한테 먼저 말을 안했다는 것이다. 그런 중요한 결정은 당연히 자신들에게 먼저 상의를 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순서가 틀렸다는 것이다. 그들 뿐이 아니었다. 아프리카 선교회 이사들 중에 슈바이처가 선교사로 가는 것을 반대한 이사들이 있었다. 이유는 그의 신앙이 너무 진보적이라는 것이다. 그중 한 선교회 이사는 죽어도 슈바이처는 안된다고 반대했다. 결국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에서 설교를 안하기로 약속을 하고 떠나게 되었다.

슈바이처는 교수와 학자로서의 지위와 명예와 안정된 삶을 포기했다. 모든 특권을 내려 놓고 헌신의 삶을 살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너무 많은 복을 받고 특권을 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살 것을 오랜 동안 생각했다. 어떤 사람들이 비난했던 것처럼 여자에게 실연을 당해서도 아니고, 갑작스러운 결심도 아니며, 자신의 오랜 된 꿈을 실현하는 것이다.

슈바이처 부부는 프랑스령 가봉 람바라네에 도착하여 Ogooué 강가에 병원을(1913) 세우고 의료활동을 시작했다. 초기에는 자비로 기자재를 구입하고 병원을 운영했으나 병원 규모가 커지면서 모금활동과 자선단체



의 도움을 받았다.

그는 람바라네 주민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남을 감동시키거나 설명하는 능력도 부족해요. 그래서 직접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1차 세계 대전 때 그는 독일 국적으로 전쟁포로가 되어 프랑스에서 억류 생활을 했다. 전쟁포로의 신세가 되어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죽음의 위험도 경험했다. 전쟁후 6년을 유럽에서 머무는 동안 아프리카에서 병원 개원의 준비를 마쳤다. 다시 람바라네로 돌아가 파괴된 병원을 재건하며 나병환자들을 위한 거주지를 만들어 보호했다. 슈바이처는 전쟁의 참혹한 모습을 보며 인류의 멸망과 문명의 위기를 실감했다. 밀림으로 돌아온 후 동물과 식물을 포함한 생명체들이 조화롭고 평화롭게 살아 가는 것을 보며 생명에 대한 경외를 자신의 윤리 철학으로 삼았다: “A man is ethical only when life, as such, is sacred to him, that of plants and animals as that of his fellow men, and he devotes himself helpfully to all life that is in need of help.”

또 다시 제 2차 세계 대전으로 인류의 미래에 대한 절망감에 빠졌을 때 그는 다시 생명 경외를 역설하고 인류 평화의 길을 제시했다. “문화철학 The Philosophy of Civilization”(1951)이라는 책에서 슈바이처는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한 존중이 평화를 이루는 길이며, 문명의 존속에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Until he extends his circle of compassion to include all living things, man will not himself find peace.” 의사로서의 헌신적인 삶과 인류 평화를 향한 노력이 인정되어 노벨위원회는 슈바이처에게 평화상(1952년)을 수여했다.

사람들은 슈바이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당신은 성자이니까 밀림에서 헌신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느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슈바이처는 “사람은 누구나 남을 도울 수 있다. 인간의 목적은 이웃을 돕고, 사랑을 베풀며, 남을 돕고자 하는 의지에 있다.” 고 했다.

그는 병원을 운영하며 재정적인 어려움도 겪었다. 아프리카의 밀림에서 죽음의 고비도 넘겼다. 그가 많은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며 헌신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명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는 요한복음 12: 24-25절을 가장 좋아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땅에 떨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었다. 병 들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며 살다가 밀림에서 90세로 임종을 맞았다.

그가 시작했던 The Albert Schweitzer Hospital 은 의료인 36명을 비롯하여 160명의 직원이 매해 3만 5천명의 방문 환자들과 6천 명의 입원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병원 소속 전염병 퇴치 연구소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기관으로 말라리아 퇴치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 Remembering The Rev. Dr. John Edward Nuessle (1952 - 2016)



We are very saddened by the passing of The Rev. Dr. John Edward Nuessle. Dr. Nuessle passed away on June 4th, 2016 at the age of 63. Dr. Nuessle was a founding member of the Hope5L2F Foundation and the Editorial Board of the Mission Journal. He also served as the Resident Theologian of the Hope5L2F Foundation.

As one of the well respected leaders and mission strategists, John made many significant contributions in shaping missions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He served for more than 30 years with the Global Ministries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in a various positions. His last position was as the Associate General Secretary with responsibilities to oversee mission development around the world. He was also the author of a book titled "Faithful Witness," the United Methodist Church's denominational mission study guide.

John was a person of faith and integrity which were always demonstrated through his work and in his relationship with others. He always made himself available for those who sought his counsel and was faithful with his mentorship. His life long dedication and passion to help others through missions are the testimonial of his faith in God. John is survived by his wife, Ginena Dullely Wills.

Many legacies of John will continue through the work of Hope5L2F Foundation.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대학원,  
두루신학대학원(미국 뉴저지)에서 수료,  
연합감리교 대 뉴저지 연회에서 사역 후, 은퇴하고 뉴욕에 거주한다.



김진양 박사



## "세상을 치유하는 새 예루살렘의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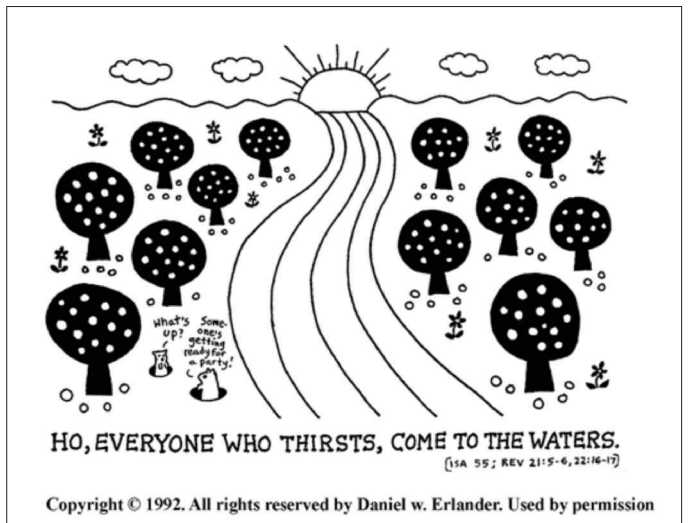
요한계시록은 바벨론을 불결한 “창녀”로 새 예루살렘을 청결한 “신부”로 대조한다. 또한 바벨론은 쇠퇴해가는 세상의 “제국”으로 새 예루살렘은 성장해가는 “하나님 나라”에 각각 비교한다. 바벨론은 오물과 폐수가 흘러나오는 불모지이며 심판의 불로 황폐해진 버려진 땅이지만(요한계시록 17:3; 18:17), 새 예루살렘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흘러 나오는 거룩한 도시다(요한계시록 21:2; 22:1). 바벨론으로 인해 세상의 모든 나라가 병들고 멸망하지만, 새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와 생명 나무로 인해 병든 세상의 상처는 치료받고 회복된다(요한계시록 18:3; 22:2). 생명의 강이 도시를 가로지르며 세상의 모든 죽어있는 것들에 생명을 부여한다. 생명의 강은 목마른 갈증을 해소하고 절망적인 현실에 희망을 주는 축복의 샘물인 것이다. 이와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꿈꾸고 만들어 나가야 할 도시는 바벨론이 아닌 새 예루살렘인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생명의 샘물”은 재앙의 결과로 피와 섞인 물로 변한 “죽음의 샘물”과 대조된다(요한계시록 16:4). 가난한 농부를 착취하고 기근과 굶주림을 대표하는 바벨론 제국의 경제법칙과 달리 새 예루살렘은 모든 사람이 생명의 나무에서 생명의 열매를 함께 나눠먹는 나눔의 경제법칙을 대표한다. 요한계시록은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헬라어의 “테라페이아”(θεραπεία)라는 의약품으로 소개한다. 하나님께서 상처받고 일그러진 세상을 고치고 보살피고 치유하고 계신다는 요한계시록의 중심 메시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끊어진 관계, 가족, 공동체, 나라를 연결해

주고, 기후 온난화로 상처투성이가 된 지구를 회복시키고 치유한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으로 파괴하는 파괴자가 아니라 치유하고 보살피는 간호자의 이미지다(요한계시록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는 다음 책을 참조하라: Barbara Rossing, *The Rapture Exposed: The Message of Hope in the Book of Revelation*, 『미국의 중동정책과 목시종말론: 요한묵시록의 희망 이야기』 김진양 번역).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새 예루살렘이 상처받고 일그러진 세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한다(요한계시록 21:2). 세상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 오시는 것이 새



예루살렘의 비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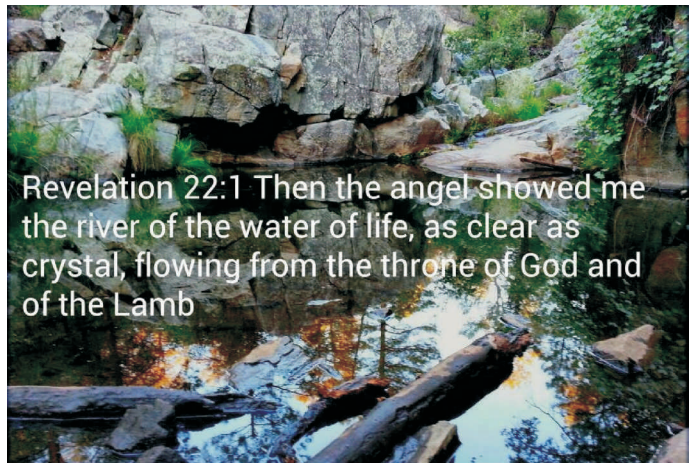
예언자 이사야는 바벨론 유배자들의 귀환을 하나님의 만찬으로 초대받는 성례전으로 묘사하고 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서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젓을 사거라” (이사야 55:1, 새번역).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바벨론 제국)의 경제 논리와 달리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이사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포로귀환)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을 볼 수 있는 물과 포도주로 표현하고 있다. 요한계시록은 바벨론 유배자들의 귀환을 노래한 이사야 말씀을 세상을 치유하는 생명수가 새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 치유와 회복의 말씀으로 다시 해석한 것이다.

은 세상을 치유하는 생명의 생명수가 새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예수님은 나병환자를 치료하시면서 손수 보여주었다. 사람들은 혹시 병에 전염될까 봐 나병환자를 멀리하거나 나병환자를 격리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병환자에게 자신의 손을 내밀어 만져주시고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 가서서 만지시는 순간 예수님의 건강이 나병환자에게 전이되어 그의 병이 낫게 된 것이다(마태복음 8:3). 즉 예수님의 치료하는 능력이 생명수처럼 흘러 나가 나병환자를 고친것이다.

아프리카 빈곤은 정치적 불안, 인종간의 갈등, 지구 온난화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마실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구 인구의 8분이 1인 무려 10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깨끗한 마실 물을 구할수 없어 가난과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이 오염된 도랑에서 놀고 있는 장면은 착취와 억압이 만들어 낸 오물과 폐수가 흘러나오는 바벨론을 연상케 한다. 바벨론은 아프리



오염된 도랑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들, 앙골라  
Photo by Mike DuBose, United Methodist Communications



Revelation 22:1 Then the angel showed me the river of the water of life, as clear as crystal, flowing from the throne of God and of the Lamb

카에서 빈곤과 질병이라는 새로운 얼굴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에게 새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와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과연 무엇일까?

연합감리교회 4대 선교과제 중 하나는 빈곤에서 오는 치명적 질병을 퇴치하는 것이다. 그동안 연합감리교회는 세계 보건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특별히 “말라리아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Imagine No Malaria)아프리카 지역에 폐수를 걷어내고 생명의 강을 흐르게 하는 일환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연합감리교회는 아프리카에 단순히 모기장을 배급하는 수준을 넘어서 교육과 의료 시설을 증강시켜 빈곤으로 오는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합감리교회는 교회내의 연대와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 말라리아 박멸을 위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연합감리교회는 7천 5백만 달러 기금 모금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북일리노이 연회도 지난 3년간 “말라리아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을 벌였고 약 1백만 달러를 모금하였다.

건강이란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건강과 보건증진은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과 질병을 또한 예방할 수 있는 의료시설을 증강시키는 것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말라리아 없는 세상 만들기 기금은 말라리아 예방, 교육, 치료에 필요한 지역 서비스 체계를 제공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말라리아 없는 세상만들기 운동이야말로 온 세상을 치유하는 새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인 것이다.

현재 미 연합감리교회 북 일리노이 연회에서 목회  
Lutheran School of Theology at Chicago (LSTC) 졸업 ( Ph.D.)  
Wartburg College, Iowa 에서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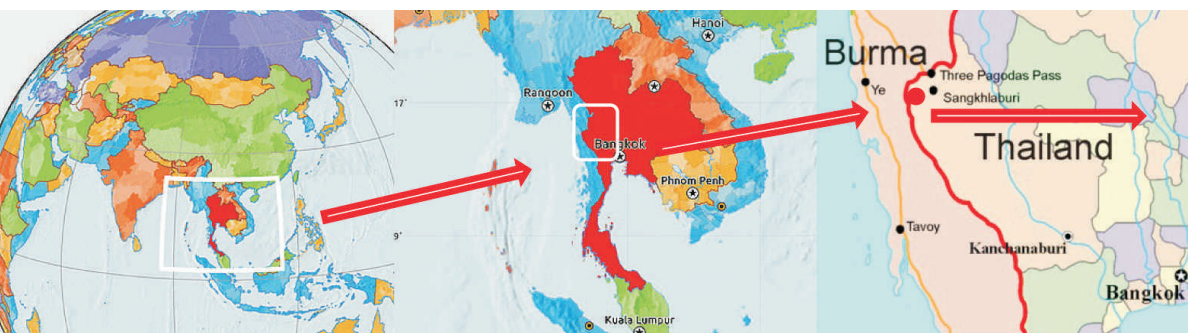
# 사진으로 보는 선교지 Missions in Picture

## Kwai River Christian Hospital

*bringing hope to a forgotten community*

within Burma/Myanmar. Particularly vulnerable individuals include patients who lack Thai citizenship and, therefore, have no access to Thailand's government health services. Importantly, KRCH provides critical preventive and curative health and medical care to thousands of these people who would otherwise have none.

The hospital is nestled in the hills along the Thai-Burma border, about 400 Km west of Bangkok. Here you will find a large number of migrants surviving in the jungle eking out a living growing rice or vegetables. Many groups do not use money to trade until they come into the towns.



In 1960, Christian missionaries founded the Sangkhlaburi Christian Mission Station to address the difficulty of accessing healthcare in this remote, rural area. Over the next two decades, the clinic grew into a respected hospital operating a number of off-site public health clinics and drawing patients from far beyond the Sangkhlaburi community. Kwai River Christian Hospital (KRCH) has been serving the community for the last 56 years.

The services of the current hospital include outpatient, inpatient and community health departments for the local population that includes Thai, Karen, Mon and Burmese people groups; this includes approximately 200,000 displaced persons, refugees, permanent migrants and transient migrant workers from Burma/Myanmar, and also residents of a large refugee camp (Baan Don Yang) nearby in a remote mountainous rural area along Thailand's border with Burma/Myanmar. In addition many patients are referred from Sangkhlaburi and from the border town of Three Pagodas Pass; and others travel from



Typical Karen village of Bamboo houses in the jungle around the hospital.



area due to the multiple people groups residing in the area. Most have no citizenship with either Burma or Thailand and therefore are a particularly vulnerable group due to the lack of resources available to them. This includes medical and health support as well as educational and spiritual. Whilst there is a variety of small clinics (both government and private) in the area these are usually fairly basic with limited resources and either requires Thai nationality or money to access them, which most of them do not own!

KRCH is a not-for-profit medical service that provides primary, secondary and often Tertiary medical care for an area up to 250 Km in every direction (covering both Thailand and Burma), although patients often travel to us from outside this zone to access our care. We are the sole surgical providers in the area and invariably the only place that can do investigations, X-Rays, biopsies and Endoscopy.

Registered as a 25-bed hospital we frequently expand up to and over 40 patients when the need requires. 2 full-time doctors take care of the day to day work, one surgeon and



Patient overflow sitting waiting to be seen

one General Doctor. Both are on call 24/7 and help see patients from all specialties.

50% of our patients travel at least 100 Km to see us each day. 30% travel over 200 Km to have their medical problems seen to. 50% of patients travel over the border from inside Burma to get their medical care seen to at KRCH. Most are simply farmers with little income and often little education, from Buddhist or Animistic cultures.

#### The goals of the hospital have been to:

1. Provide excellent Health care

2. Share the Good news of Christ, thereby building God's Kingdom
3. Train and develop local nationals (in medical skills and Evangelism)
4. Help the poor with medical costs when necessary

We have 3 full-time Evangelists (Hospital Chaplains) who ensure that every patient that comes into the hospital has a chance to hear the Gospel in their own language and be able to take Christian literature away (if they can read and so desire). Treatment is offered to all with no pressure to believe in order to receive the care they need.

Daily each morning at 9AM the busy Outpatient Department is turned from Hospital waiting room with patients waiting to see the doctors, to a room where the Gospel is presented in simple fashion for 30 minutes when the Evangelists alternate in sharing the Gospel in each of 5 main languages. Bible stories are told and Jesus Christ is preached through these stories so that all that come will leave with having had the physical needs and ailments attended to and their much deeper spiritual needs addressed to or even prayed for.



The Gospel explained to the outpatients



\* A special thanks to Dr. Scott Murray, Hospital Director, for contributing this article.



와싱턴제일  
연합감리교회

## 목회와 선교 비전, 교회선교 소개



정성호 목사 부부

저희 와싱턴제일연합감리교회는 1979년 미국의 수도 Washington DC 지역인 버지니아 알링턴(Arlington)에 개척되었으며, 현재는 버지니아의 헨든(Herndon)에 두번째 교회건물을 구입하여 이전한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올 해로 37주년을 맞는 저희 교회는 고한준목사님과 협성대학교 교수이신 유성준목사님 두분 전임자의 깊은 영성과 헌신적목회로 잘 성장해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세계의 심장 미국의 수도인 DC 지역에 위치하였기에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 사명에 거룩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동시에 교회의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선교와 사역활동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 현재 주어진 달란트의 분량을 가지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느낍니다. 그러한 가운데, 최근에는 선교실천에 대한 변화를 만들어 가는 중입니다. 동기는 급식사역의 포화현상 덕분이었습니다. 저희는 DC의 무숙자들을 위한 급식사역인 Soup Kitchen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던 중, 급식사역에 동참하는 교회들이 증가함에 따라 중복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래서 자

연스럽게 사역현장을 교회가 위치한 헨든 지역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지역을 살펴보던 중 헨든 지역에도 무숙자들이 적지 않는 사실 뿐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들이 많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각도로 의논한 끝에 향후 몇 년 간의 사역은 지역사회(communitiy)를 섬기는 방향으로 집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역의 가난한 이웃들, 소수 이민자 가정, 지역의 미자립교회들, 지역사회를 섬기는 소방경찰공무원들 위해 우리교회가 현재의 능력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역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해외선교는 여러나라에 단기선교팀 파송, 현지에 집을 지어주는 사랑의 집짓기, 선교사 후원등을 해오던 중 산발적인 선교의 방향을 정리하고 대신에 선택과 집중을 꾀하여 효과를 높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단기

선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한 지역을 여러 교회들이 중복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단독으로 파송하는 단기선교보다는 여러교회가 참여하는 협력선교에 동참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연합감리교회 선교협의회나 Hope5L2F 재단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비용의 낭비를 줄이면서 더 다양한 선교사역을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절약되는 비용은 지역의 미자립 혹은 개척교회 목회자를 후원하는 선교비로 사용하기로 하고 몇 교회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 생수사역을 돕는 일은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극빈자들이 사는 수상가옥마을에 매년 정수기 관리유지비와 필터를 제공함으로 현지 선교사님이 생수제공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매년 사순절과 대강절 기간동안 사랑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특별선교헌금을 통해 아프리카/아시아 지역의 말라리아 예방 프로그램인 Nothing But Net에 모기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의 모기장이 2분마다 한 명씩 죽어가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숫자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는 데는 일본에서의 선교사 경험과 훈련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선교는 보내는 사람들의 관점과 필요성이 아닌 현지의 필요성에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선교현장을 위해서는 한 번의 이벤트성 큰 도움보다는 작아도 정기적이고 지속가능





한 활동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았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통일위원회를 통한 북한의 국수공장 후원, 국제선교단체를 통한 어린이 일대일 후원 참여, 방글라데시 장순호 선교사님을 통한 어린이 일대일 후원과 선교비 지원 등이 기억에 남습니다. 벨리즈에는 현지요청으로 우리 선교팀원들과 현지인들이 협동으로 주택들을 건축해 주었는데 그 역시 현지의 필요성과 요청에 맞춘 선교로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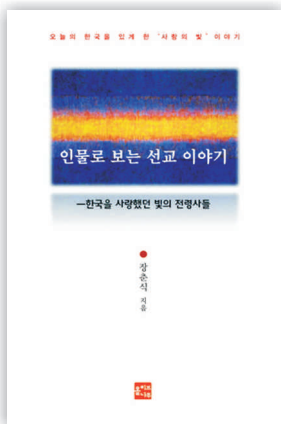
목회의 비전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며,그

것을 실천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300명과 장기적으로 600명의 예배자를 세우는 “비전 600 드림 300”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차 3개년 중장기 계획팀을 세워 우리교회의 현재를 분석하고 단계적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새로운 예배자 헌신된 교인들이 세워질수록 선교의 역량도 함께 높여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목회의 방향성은 “말씀으로 더 깊게, 기도로 더 높게, 세상으로 더 넓게”입니다. 이 일을 실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교회가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기 원하시는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저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가지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성령님의 권능 안에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해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날 차별, 분쟁, 착취, 소외로 고통 당하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우리가 되는 것이 성공이요 가치임을 알아서 “말씀으로 더 깊게, 기도로 더 높게, 세상으로 더 넓게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선교사로 동경에 교회개혁  
현재 와싱턴제일연합감리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섬기는 중.  
Wesley Theological Seminary에서  
목회학박사(D.Min).



## "인물로 보는 선교 이야기" – 한국을 사랑했던 빛의 전령사들

지음 : 장춘식 목사 | 기획 : Hope5L2F 재단

한반도에서 지난 150여 년에 걸쳐 이루어진 남녀 선교사들의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하나님의 영의 역사. 현대 세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선교의 성공적 사례로 손꼽히고 한국 교회의 시작과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40여 분의 감리교내한 선교사들의 사랑의 역사가 펼쳐진다. 그들은 한국 기독교의 기초를 놓기 위해 수고하고 희생한 인물들이었으며, 교육과 의료와 사회봉사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 근대화의 개척자들이자 선구자들이었다. 내한 선교사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지나가버린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역사인 동시에 세속적인 현대교회에 대한 도전과 메시지를 저자 장춘식목사를 통해 듣게 된다.

이 책의 구입( 값: \$15 )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 주십시오.  
(\*수익금은 전액 동남아시아 선교 프로젝트를 위해 쓰여집니다.)

연락처 Phone: (866) 967-5123  
Email: info@Hope5L2F.org



Dr. Caroline W. Njuki

# FOLLOW JESUS

JESUS HEALS  
JOHN 5:1-17

## Mission in Preventive Health and Wellness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describes health and wellness as "the state of complete physical, mental and social well-being". Health is not only the absence of disease or infirmity, but being in harmony with oneself and those around, with a purpose and meaning to one's life. While one may look at health and wellness as being two different condition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a healthy attitude can bring about a better and healthier state of well being and therefore the linkage. The agenda for Health, Wellness and Prevention should therefore put emphasis on promoting the physical, emotional spiritual and over all well being of the person. Such topics as: prevention of ill health, education, economic stability, water and sanitation, training, issues around violence against women, and children, access to health care services, and stress reduction should be a back bone in the health and wellness ministry. Determinants that play a role being in good or poor health include:

**Habitat;** people who live in third world countries are more likely to lack

access to health facilities, have poor nutrition, be affected by harsh environmental conditions, face political instability that forces them to constantly be on the move, etc. There are also marked differences in health between people who live in rural verses urban areas.

**Environment;** people who live in over populated, noisy, overcrowded stressful environments are more likely to experience higher levels of ill health than those who live in clean less densely populated areas. People who live in flood zones, earthquake prone areas, and dry arid places where the soil has no nutrients and where the water table is so low that nothing can grow are impacted negatively by the harsh environmental realities.

**Genetics;** medical research has proven that genes play a big role in the kind of health people inherit. Some people are susceptible to mental illness, diabetes, hypertension, cancer, arthritis and other chronic diseases that are oftentimes passed on through the genes.

**Education;** research has clearly indicated that people with a higher level of education on the average enjoy a better and healthier standard of living and lifestyle. Women who have a higher education on the average have fewer children and able to better provide for their families. Unfortunately, not all the factors that affect people's health can be mitigated one hundred percent.

Health and wellness should be interwoven in mission and ministry. The health and spiritual well being of communities should be an underlying goal in the Christian message. Sundays can be a time for rejuvenation, and spiritual renewal. Jesus recognized the need to respond to health and mental anguish among his followers and therefore carried out His "healing ministry. During Jesus' time, people were afflicted by various diseases such as mental illness, epilepsy, paralysis, leprosy, blindness, etc. "And Jesus went throughout all the cities and villages teaching in their synagogues and proclaiming the gospel and healing every disease and affliction" (Matt.

9:35). Many of the diseases He healed persist today. It is unfortunate that as some diseases are eliminated, others creep up; HIV/AIDS, Ebola, diabetes, stroke, hypertension, etc. and daily stress sometimes results in violence.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toxic pollutants from burning fossil fuel; reduction in natural vegetation that used to act as a protective layer from the direct rays of the sun, and the dumping of toxic waste negatively impacts people's health. Jesus' mandate to Christians was to engage in the spiritual and physical well being of others. The bible has many stories about Jesus' healing ministry; the blind men, Matthew 9: 27-31; the leper, Mathew 8: 1-4; (in the bible, a person afflicted by leprosy was perceived as unclean and not to be touched), the cripple, John 5: 1-17; Mark 2: 3-4; and Jesus the healer, are just a few examples.

Historically, Christians have been proactive in the ministry of health. As missionaries spread the gospel abroad, they constructed schools, clinics, and hospitals. Many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hospitals in "developing" countries were started by missionaries and are still referred to as mission hospitals. Early missionaries practiced preventative health by teaching people how to practice proper hygiene in order to prevent diseases. They dug wells, so that people could have access to clean water, encouraged people to live healthy lifestyles... no drinking, healthy sexual practices, emphasis on nonviolence etc. Not to say that everything they did was positive. In the "West", denominations constructed large hospitals some of which have grown into the state of the art institutions and they still bear denominational names e.g. "Methodist Hospitals"; "Presbyte-

rian Hospitals"; "Lutheran Hospitals"; "Catholic Hospitals", etc. Some of these hospitals are now centers of research leading to new cures.



HOPE5L2F Foundation believes that the prevention and promotion of a wholesome physically and spiritually healthy human beings, is a Christian calling. HOPE5L2F believes that it is difficult if not impossible, to carry out mission when people are unwell. The path to health requires a holistic approach, inclusive of: economic empowerment, entrepreneurial programs, access to credit, schools, training, clinics, clean water, and spiritual renewal. Communities need to be sensitize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and mental wellness and given direction to available preventive measures. It's the responsibility of church and community leaders to hold people accountable to each other in order to promote wellness. In New York City, there is an advertisement which says, "If you see something, say something". People in the community should be each other's keeper and hold each other responsible, especially in terms of mental health. We must be able to identify brothers and sisters who are in crisis and find ways to get them help... (Say something). As Christians we should not be quiet about the poor mental and physical health within our communities. In Nigeria over 100 young gir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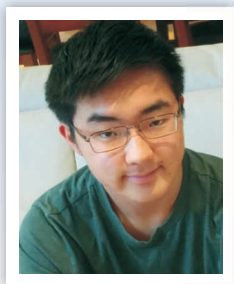
abducted and no one really knows their fate after two years; in Connecticut 26 little innocent souls moored down in an instant; in Uganda, hundreds of people killed or maimed while watching the World Soccer Match finals? Who except a mentally ill person or persons would commit such heinous acts? "Wellness is the state or condition of being in good physical and mental health". Unfortunately, there are many who are in perfect physical health but in mental crisis. Christians must find a way to prevent these horrendous acts. People afflicted by mental and physical illness must be given the necessary help so that others may not suffer at the hands of the sick.

It should be a Christian mandate to do everything possible in order to find solutions that will enable His people to achieve full spiritual and physical healing and wellness. Church leaders should work with government, health providers, schools and other institutions to find interventions that can holistically be applied to ensure physical, spiritual and mental wellness.

Preventive medicine has evolved since the days of Jesus' ministry. Mental health for example, was referred to as "possession", and today treated like any other disease, controlled by medication. The emphasis on health is "prevention" through regular exercises, yearly check-ups, yoga, proper nutrition etc. HOPE5L2F invites people in mission to be catalysts in ensuring that preventive health is available to all.

---

*An educator and advocate for gender equity for the last 20 years, Dr. Caroline Njuki has worked with the church, NGOs, the UN,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around the world. She also served as an Associate General Secretary with the Global Ministries of the United Methodist*



Joshua Kim

Do not be  
**shaped**  
by this world.  
Romans 12:2

### “We Brought Nothing”

A few days ago I visited my grandparents' house for a family gathering. I began the day by brushing my teeth, taking a shower, changing, and eating breakfast. My parents, grandmother, and I then drove in our car to my grandparents' house where I caught up with my grandparents, aunts, uncles, and cousins, all of whom I had not seen in over three months. After eating a very large lunch my mother drove my father and me home and I began unpacking, having arrived from school less than a week ago. My parents and I then ate dinner, and then I fell asleep in my bed in my room. If someone were to ask me about what I was grateful for from that day, my first reaction would be to say, "being able to sleep in and wake up without an alarm."

Looking back, there are far too many instances in my life where I was ignorant of how fortunate I am. I forget how lucky I am to have clean water, access to healthcare, and my own room. I barely consider how unbelievably blessed I am to be able to attend college, especially when school starts. According to 1 Timothy 6:7-8, "We brought nothing into the world, and we can take nothing out of it. But if we have food and clothing, we will be content with that." Everything beyond our bare necessities is a blessing, yet I cannot begin to count how many times I have forgotten this.

That being said, I do not believe that we are expected to pause and pray every ten seconds about how blessed we are to live in a first world country. I believe it is important to approach life with a sense of gratitude. It is easy to see what we do not have, but it is harder to appreciate what we have been given. It is especially difficult to appreciate things we have always treated as givens. Mission work is something that allows us to view new perspectives and develop an appreciation for many aspects of our lives. By touching the lives of others and providing aid, both physically and

spiritually, we can witness the importance of things we take for granted. We can learn how fortunate we are to visit our families on a regular basis because they are alive, healthy, and/or within reach. We can discover more about places where it is not only frowned upon, but also illegal to be a Christian. Mission work allows us to both broaden our horizons and appreciate what has always been in front of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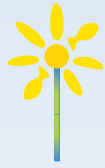
Romans 12:2 states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 By looking beyond our own experiences and learning from others' perspectives, we learn about our position relative to the rest of the world. We were all brought into this world as equals, and works such as mission allow us to learn how to use the resources we have been given to help others.

I am not saying mission work will allow us to develop a perfect sense of empathy with those whom we are helping, and certainly not that we are better than them. I also do not believe mission work is restricted to buying a plane ticket and planting yourself in a community where you can't even speak the native language. Mission work is grounded in the fact that we are capable of helping others due to the resources we have been given. It allows us to develop a greater understanding of others and grows our appreciation towards what we have been given. Therefore, I believe participating in mission is almost entirely beneficial and I hope that more people will become interested with mission work in the future.

---

*Joshua Kim is an undergraduate student at Northwestern University in Chicago. He loves music and plays violin. He is studying Chemistry and is planning to become a research scientist.*

# Making A Difference



## HOPE5L2F

### Foundation 사업 소개

## Microcredit Project : Pepper Farm in Cambodia - Mr. Leng Thy -



First of all, let me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to God for allowing the Hope5L2F Foundation to grant my family a microloan of \$5,000, interest-free for 36 months. This generous loan will allow us to launch our pepper farm, located in the village of Krek, Tbong Khmum Province.

Pepper crop is the most profitable cash crop in Cambodia. We planted 250 poles of pepper on the land of 1,250 square meters. Though pepper crop requires more capital in its investment, it is quick to harvest and the market price is stable. Currently, our pepper plants are about 10-month age. They are growing well, so my family is hopeful for the future. Though the farm cannot be harvested of its crops at this time, the pepper farm of 250 poles will offer my family financial security with significant annual income in the next 2 years.

We are grateful for this wonderful opportunity. It not only serves my family, but also our entire community because we are able to hire our neighbors and offer compensation for their labor. It has become an income source for many and is working to alleviate poverty and uplift entire community.

I will never forget to thank God for his presence and grace to make all things possible and, again, I would like to extend my appreciation to Hope5L2F Foundation.

Hope5L2F 재단은 2016년 6월에 캄보디아 크렉 마을의 령 티씨의 고추농장에 소액 무담보 대출인 마이크로크레딧을 지급했다.

소액 융자는 융자를 주는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것보다 상환을 쉽게 하도록 하는 방안이 훨씬 중요하고 효율적이란 점을 염두에 두고, 돈을 빌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의지를 굳게 만들고, 빌려 준 돈을 제대로 상환 받는 방식이다. 또한, 융자 받은 사람들에게 자립의 길을 열어 줌으로써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며, 그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커뮤니티와 함께 이익을 나누고, 수입을 보충하여 자력갱생의 희망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다.

령 티씨는 융자를 받아 번식력이 좋고, 가격이 안정된 250 그루의 고추나무를 심고 기쁨으로 수확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Hope5L2F 재단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령 티씨가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그의 고추농장에 이웃들을 고용하여 그들에게도 수입원을 만들 수 있게 되어 더욱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적당한 비가 내리고, 좋은 날씨가 계속되어 령 티씨의 고추농장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해 본다.



Hope5L2F Foundation is a 501(c)(3) charity and your contribution is fully deductible according to IRS rules and regulations.

100% of your donation will be used for the purpose you designate.

[www.Hope5L2F.org](http://www.Hope5L2F.org)

### I (We) would like to support the Hope5L2F Foundation as follows:

- Development Projects (Economic Development and Micro-Enterprise)
- Publications (Mission Journal, Training Manuals, Brochures, etc.)
- Leadership Development (Scholarships, Leaders Training, etc.)
- Program Development and Administration (Meetings, Consultations, etc.)

\$10  \$50  \$100  \$300  \$500  Other \$ \_\_\_\_\_

Please send your donation (payable to **Hope5L2F Foundation**) to:

**Hope5L2F Foundation**

**P.O. Box 8238, White Plains, New York 10602-8238**

## Vision

As a Christian organization, the Hope5L2F Foundation (Foundation) will primarily work with Christian faith communities and NGOs to improve human lives and economic conditions in developing countries. The major objectives of the Foundation shall be 1) to alleviate poverty among families in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means of microcredit enterprises and economic developments, 2) to create job opportunities for quality of life and economic sustainability through business ventures, 3) to develop systematic ways to educate local persons especially for young women and men for entrepreneurship.

## 함께 만들어 가는 "선교저널"

"선교저널"은 미주 한인 교회들의 선교 사역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인 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교저널"의 목적은 미주 한인 교회들이 선교에 대한 성서적 이해속에 건강한 선교 사역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선교의 참여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가 교회 성장의 도구로서, 개체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 하는 일에 기여하기 원하는 간절한 소망과 꿈이 있습니다.

Hope5L2F Foundation is a 501(c)(3) charity and your contribution is fully deductible according to IRS rules and regulations.

Hope5L2F 재단은 미 연방국세청(IRS)으로부터 비영리단체(NGO)로 인정 받아 501(c)(3)로 등록된 단체입니다. Hope5L2F 재단으로 보내 주시는 헌금은 IRS의 법규에 따라 전액 세금공제됩니다.

헌금하신 금액은 지정하신 사역을 위해 전액(100%) 사용됩니다. Hope5L2F 재단의 사역을 위해서 계속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If you would like to receive additional copies of Mission Journal, please contact us at [missionjournal@hope5L2F.org](mailto:missionjournal@hope5L2F.org)

"선교저널" 책자를 원하시는 개인이나 교회는 [missionjournal@hope5L2F.org](mailto:missionjournal@hope5L2F.org)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ope5L2F 재단은 미 연방국세청(IRS)으로부터 비영리단체(NGO)로 인정받아 501(c)(3)로 등록된 단체입니다. Hope5L2F 재단으로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IRS의 법규에 따라 전액 세금공제됩니다.

헌금하신 금액은 지정하신 사역을 위해 전액 (100%) 사용됩니다.

[www.Hope5L2F.org](http://www.Hope5L2F.org)

Hope5L2F 재단의 사역을 위해 다음과 같이 헌금합니다.

- 지역사회 프로젝트 개발 (Economic Development & Micro-Enterprise)
- 자료 개발 (선교저널, 훈련 교재)
- 지도자 및 지도력 개발 (장학금, 지도자 훈련)
- 사역 개발 (선교 세미나, Networking)

\$10  \$50  \$100  \$300  \$500  기타 \$ \_\_\_\_\_

Hope5L2F 재단을 후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 체크는 **Hope5L2F Foundation** 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Hope5L2F Foundation**

**P.O. Box 8238, White Plains, New York 10602-8238**